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동네 서점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 강구	파리
문화·관광	5	겨울철 도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디자인 공모전 개최	클리블랜드
사회·복지	7	도심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분석에 청각 장애인 고용	오악사카
	8	부랑자 및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도시미화 일자리 제공	암스테르담
행재정·교육	10	2000년도 이후 미국 내 대도시 중 뉴욕만 유일하게 빈곤율 정체	뉴욕
환경·안전	13	화학비료를 대체하기 위한 소변기증 캠페인 전개	암스테르담
	14	에너지절약형 주택보수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마련	프랑스
	17	건물 신축 시 에너지 효율 건축설계 자문 지원	뮌헨
	19	지역사회 농장(Community Gardens) 사업을 이용한 지역사회 개발	시드니
도시교통	21	효율적으로 단순하게 요약된 자전거 노선지도 제작	샌프란시스코
도시계획·주택	24	‘걸어서 즐거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물류차량 감소 대책 마련	교토
	26	문화유산 보존 중장기 전략 발표	멜버른



동네 서점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 강구

파리市 / 문화·관광

- 파리市에서는 2000~2011년 사이에 인터넷 서점 증가와 문화상품의 디지털화, 그리고 가게 임대료 폭등과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200개 이상의 서점이 폐업하였음. 특히 소르본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대학이 위치한 파리 6구의 라탱 지구(Quartier Latin)와, 인접한 생-제르맹 데 프레(Saint-Germain des Prés)의 역사 깊은 서점들이 옷가게 등에 자리를 내주는 상황에 처하자 정치가들과 미디어, 그리고 시민들은 이를 매우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집 근처의 서점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도 함. 파리市 또한 서점을 살리기 위한 뚜렷한 개입 의지를 보이며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함.
- 파리市는 첫 번째 대책으로 대형서점 파산으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에 적극 개입함.
 - 2013년 1월 다국적 문화상품 판매 체인업체인 버진 메가스토어(Virgin Megastore)의 프랑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음. 파리 8區의 샹젤리제 大路 및 18區 바르베 大路 등에 매장을 두고 파리市의 문화적 풍경의 일부를 이루었던 버진 메가스토어의 파산은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쇼크로 다가왔음. 파산 절차가 초고속으로 폐점 일정과 함께 최저가 재고처리 시행 계획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업체에 고용된 400여 명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대책 없는 초고속 대량해고에 직면하게 됨.



파리 18區 바르베 대로에 위치했던 버진 메가스토어의 제 2매장 모습

- 이에 파리市는 업체 직원들과 판매서비스 노동자 부문노조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고 해당업체의 소유주들(Butler Capital & Arnaud Lagardère 연합투자금고)과 몇 주간에 걸친 지루한 협상을 벌인 결과, 일자리 지키기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용자들은 처음 제시된 8백만 유로 대신 총 1천 5백만 유로로 증액된, 퇴직자 개인으로 볼 때는 재취업 교육 비용과 몇 달분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받게 됨.

- 파리市는 사업 공모방식을 통해 새로운 서점을 개장함.

- 버진 메가스토어의 파산 처리 상황에서, 파리市는 서점을 살리기 위해 다른 카드를 마련함. 버진 메가스토어 제2매장이 위치한 파리 18區, 바르베(Barbès) 대로 19번지 건물은 사실 파리市의 광대한 사회적 주택을 관리하는 공기업 Paris Habitat 소유임. 파리市는 Paris Habitat가 경영상 손실을 입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파산한 버진 메가스토어 제2매장이 문화적 용도를 지닌 장소로 유지되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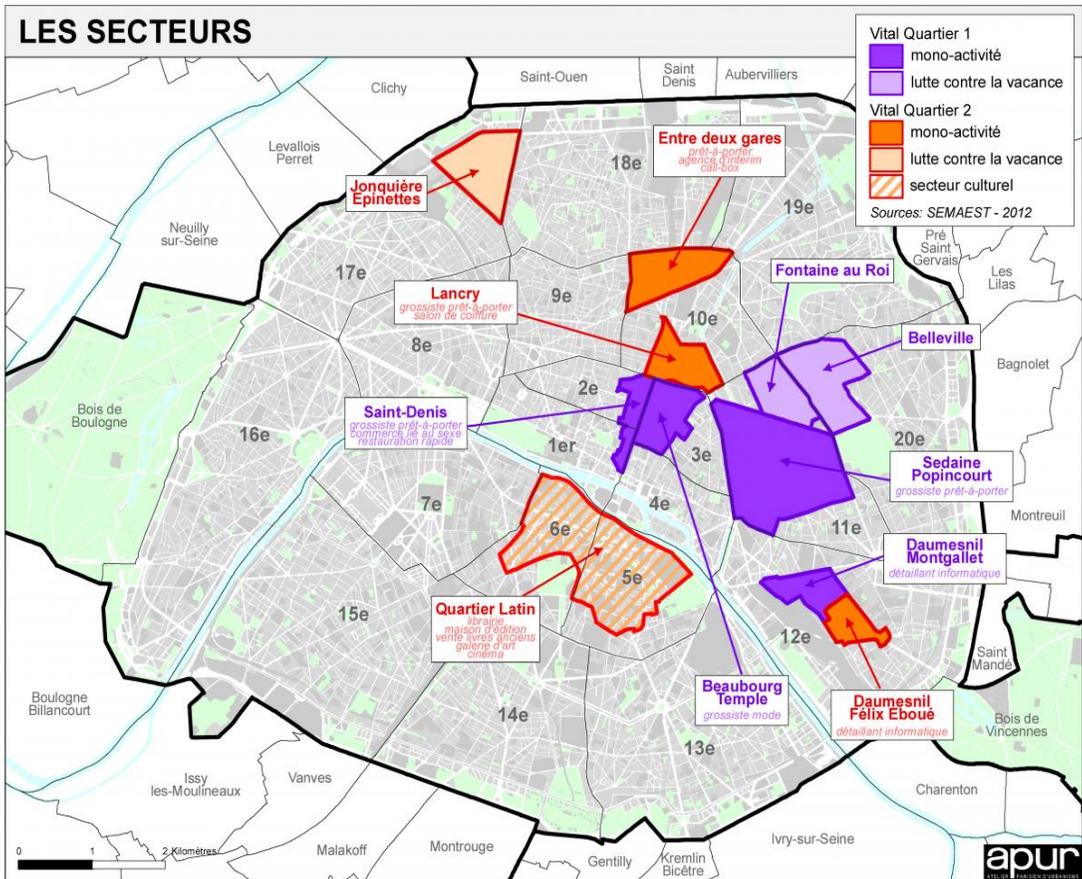


파리 6區 대학가인 라탱 지구에서 헌책과 새책, 음반과 DVD 등의 판매로 명성을 쌓은 질베르 조제프 서점 본점 모습

- 이에 파리市는 ‘사업 공모’ 방식을 통해 본 매장을 임대할 업체들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고, 바르베 대로 근처에 제2캠퍼스를 열 파리8대학 학생들의 투표 결과를 참조하여 입점할 업체를 선정함. 대형 패션매장, 피트니스 센터 등 공모 참가업체는 많았지만, 결국 공모에 뽑힌 것은 파리 6區 대학가에서 중고 책과 음반, DVD 등을 거래하는 서점으로 오랜 명성을 쌓은 질베르 조제프(Gibert

Joseph) 서점이었음. 사실 질베르 조제프 서점의 제안서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다른 업체들보다 매력이 덜했으나, 파리市에서는 이 서점이 문화경영에 관심과 경험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선정함. 이 서점이 파리市와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버진 메가스토어의 일부 퇴직자들을 포함한 28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하기로 함으로써, 파리의 주요 거리에 대형 서점이 재탄생하게 됨.

- 파리市는 “비탈 카르티에” 프로젝트를 통해 市 보유 상가건물에 직접 서점 매장을 유치함.
 - 파리市는 2008년부터 시행된 “비탈 카르티에”(Vital Quartier, 생기 있는 거리) 프로젝트 2단계에서 ‘문화 상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7곳의 서점과 5곳의 출판사 직영 서점을 市 보유건물에 유치함.
 - “비탈 카르티에” 프로젝트는 본래 1) 옷가게 등의 한 가지 품목으로 상가 구역이 점령된다든가, 2) 바캉스 기간(여름방학, 연말연시) 등에 상가가 대거 철시해 먹을거리를 비롯한 생필품을 살 곳조차 마땅하지 않다든가, 3) 문화도시 파리의 명성을 이어온 문화 상품 매장들이 사라지고 있다든가 하는 문제들에 맞서, 근린 상가의 다양성과 활기를 지키기 위한 정책임. 이 프로젝트에 따라 파리市 거리활성화정비국(SEMAEST)은 파리 내의 11구역을 “비탈 카르티에” 지구로 지정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이 구역들 내의 건물을 市가 매입하여 적절한 업종에게 싼 임대료로 직접 임대하거나, 또는 구매희망자에게 매매하기도 함. SEMAEST의 임대건물은 개보수가 완비되고 모든 건축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3개월분 월세만을 보증금으로 내는, 사실상 보증금 없는 임대임. SEMAEST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들에게 상업활동 교육을 제공하고,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며, 매장운영 감사 서비스까지 제공함.
 - “비탈 카르티에” 1단계(2004~2015)에는 5,750만 유로(약 834억 원)가 투입되었고, “비탈 카르티에” 2단계 계획(2008-2012)에도 다시 3,400만 유로(약 49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2단계 계획에서 대학가인 라탱 지구가 “문화 상권”으로 선정되었으며, 파리市는 이를 통해 현재 총 17곳의 문화상품 매장을 임대하였음.



파리시의 '비탈 카르티에' 선정 11지구. 보라색 지역은 1단계 선정지역, 오렌지색은 2단계 선정지역임. 진한 보라색과 진한 오렌지색은 상권 단순화 우려 지역, 연한 보라색과 연한 오렌지색은 휴가철 장기간 철시 우려 지역, 오렌지색 빗금 지역은 문화상권 수호지역임(출처: 파리 도시계획연구소(apur, Atelier parisien d'urbanisme)).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gibert-joseph-dans-le-18e-les-coulisses-d-une-reprise/rub_1_actu_137616_port_24329

<http://www.semaest.fr/article/vital-quartier>

<http://www.metronews.fr/paris/paris-gibert-joseph-succedera-au-virgin-de-barbes/mmjy!Wkk4gjpLQDM2>

<http://www.metronews.fr/paris/virgin-le-tribunal-de-commerce-prononce-la-liquidation-judiciaire/mmjy!GnNDAOk6K5py2/>

문화·관광

겨울철 도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디자인 공모전 개최

미국 클리블랜드市 / 문화·관광

- 클리블랜드(Cleveland)市에서 겨울철 도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디자인을 공모하기 위해 국제 디자인전인 “Center for Outdoor Living Design(Cold) & Coldscapes Competition”을 개최한 결과, 겨울의 도시를 아름답고 활동적이게 만들어 주는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임.
- 우수한 작품 중 하나인 ‘Second Hinterlands’(제2의 내륙)는 쌓인 눈을 지정된 도심 공터로 모아 거대한 산을 만들거나, 눈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일반시민들이 인조 언덕에 올라 도심 전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임. 이렇게 눈으로 만들어진 미니 언덕은 시민들이 눈썰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도심 놀이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함.
 - 또 다른 작품으로는 거리의 눈을 이용한 이글루가 선정됨. 나무 뼈대를 이용해 쌓인 눈이 벽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눈이 내부온도를 적절히 지켜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이러한 도심 속 눈을 이용한 디자인은 매년 장소와 설치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모습의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음.
- 현실적으로는 해빙과 함께 발생할 배수 문제, 쓰레기나 먼지로 인한 흰 눈의 색 변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들은 겨울철 야외활동을 장려하고, 새로운 도시경관을 위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



도심 광장에 설치된 눈으로 만들어진 언덕



다양한 형태의 언덕과 터널을 이용해 겨울철 도심의 또 다른 공원을 조성하는 아이디어



눈이 쌓여 벽을 만들어 내부온도를 높여주는 이글루형태의 조형물

<http://www.theatlanticcities.com/design/2013/11/instead-plowing-snow-what-if-we-shaped-it-fun-climbing-mountains-or-dunes/7701/>

<http://www.natalya-egon.com/ABOUT>

사회·복지

도심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분석에 청각 장애인 고용

멕시코 오악사카市 / 사회·복지

- 멕시코 남부에 위치한 관광도시 오악사카(Oaxaca)市는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통제센터에 청각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음. 이들은 비디오를 분석하는데 일반인보다 뛰어난 집중력과 분석 능력을 보이고 있어 사고 발생 지역에 즉각적으로 경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을 제공함으로써 고용효과도 얻고 있음.
- 2012년 겨울 오악사카市는 市의 통제센터에 20명의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고용하여 도심에 설치된 230여 대의 감시카메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400대로 감시 네트워크망을 확장해 갈 예정임.
 - 청각장애인들은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 일반인들보다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카메라 화면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화 등도 입술의 움직임을 통해 대화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사건 현장을 보다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경찰 출동의 결정 등 신속히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이러한 분석능력으로 인해 2012년에는 실제 살인사건을 해결하기도 하는 성과도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과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접 오악사카市 통제센터를 방문하기도 함.
 - 카메라를 통한 감시가 비록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경찰의 출동시간을 줄여주고 사건을 예방한다는 입장에서 경찰과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있음. 오악사카市는 범죄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지만,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광객들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청각장애인들이 카메라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과 소통을 하는 담당관의 모습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world/oaxacas-angels-of-silence-deaf-police-officers-see-crime-where-others-dont/article15520263/>

<http://www.theatlanticcities.com/technology/2013/11/mexico-uses-deaf-people-monitor-surveillance-cameras/7680/>

http://www.nytimes.com/2012/12/19/world/americas/deaf-officers-keep-watch-over-crime-in-oaxaca.html?_r=0

부랑자 및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도시미화 일자리 제공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 사회·복지

-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Amsterdam)市에서는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Rainbow Foundation을 통해 Ooster Park 근처를 배회하는 부랑자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일주일 3번 공원을 청소하는 일을 맡기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음식 및 일당과 함께 담배와 맥주를 제공해주고 있음.
- 공원 근처를 배회하는 부랑자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거나,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어, 암스테르담市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이 지역의 부랑자들은 싸움, 욕설, 소음 등을 일으키며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왔으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랑자들은 2팀으로 나누어 일주일에 세 번 공원

청소 작업에 동참하게 되며, 작업 전/후에 총 5캔의 맥주를 제공받게 되고 식사와 함께 10유로 (약 14,000원)의 일당을 받게 됨.

- 인터뷰에 참여한 한 부랑자는 이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일당 및 공동생활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보였음. 일부 사람들은 제공된 10유로를 이용해 더 많은 음주를 하기도 하지만, 일부 사람은 힘든 노동을 통해 얻어진 일당을 다른 곳에 사용하길 원하기도 함. 프로젝트 참여자 대부분이 몸무게가 늘어나고, 일시적이거나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고 함.
 - 이 프로젝트는 사회생활과 단절된 부랑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주변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부랑자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알코올을 제공하는 네덜란드식의 실용주의적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이들을 사회생활에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일련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市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알코올 양을 참여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 프로젝트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이 평소에 마시는 알코올 주량에 비하여 5캔의 맥주는 많은 양이 아니라고 평가함.
 - 현실적으로 부랑자나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몇 십 년간의 사회적 치료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이와 같은 관리가 다른 복지정책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또한, 다른 방법을 통해 부랑자들을 관리할 때의 인력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비용면에서 보다 경제적임.
 - 또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부랑자들에게도 일거리를 제공하여 성취감, 연대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부랑자들이 공원주변을 청소하는 모습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맥주와 담배

<http://www.thewire.com/global/2013/11/amsterdam-paying-alcoholics-beer-clean-its-streets/355313/>

<http://www.theatlanticcities.com/neighborhoods/2013/11/logic-behind-paying-severe-alcoholics-beer/7702/>

<http://news.yahoo.com/amsterdam-pays-alcoholics-beer-clean-streets-162840412.html>

행재정·교육

2000년도 이후 미국 내 대도시 중 뉴욕만 유일하게 빈곤율 정체

뉴욕市 / 행재정·교육

- 뉴욕市는 미국 내 20개 대도시의 빈곤율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는데, 그 중 뉴욕市가 2000년 이후 유일하게 빈곤율이 증가하지 않은 도시인 것으로 나타남. 분석 대상인 대도시 20곳은 2000년도 이후 빈곤율 증가 정도가 평균 36%로 적게는 3%(El Paso)에서, 크게는 88% (Indianapolis)로 도시간 차이가 많았음. 미국 전

체의 경우는 2000년도 대비 2012년도 현재 평균 28%의 빈곤율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음.



미국 20개 대도시의 빈곤율 변화

- 뉴욕시는 미국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빈부격차로 인해 지속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인 빈곤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적극적인 빈곤방지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빈곤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히 일차원적인 보조금이나 푸드스탬프 등의 지원보다는 어린이와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정책 개혁, 공격적인 지역별 경제개발전략 수립, 남미계 및 흑인과 같이 고등학교 졸업비율이 낮은 가정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및 청년층의 취업과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블룸버그시정은 가난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시장 직속 기관(Center for Economic Opportunity)을 두고 관련 NGO 및 도시 행정부서들과 연합하여 빈곤 퇴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시정부와 민간 부분이 반씩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민관 연합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층에게 점심, 직업교육,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 공립학교의 교육비 예산을 40% 인상하고, 미국 전체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교육비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빈곤층 자녀가 구직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가고 있음.
 -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서비스 시행으로 건강문제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 거주 가능한 저소득층 공공주택도 165,000가구 이상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뉴욕시는 기존의 빈곤율 감소를 위한 전략들이 그동안 개선 없이 지속되어온 점을 지적하고, 다문화도시의 현황에 맞는 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 여러 부서가 연합하여 사회 문제 발생률이 높은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 범죄율 감소를 위해서도 다차원적인 복합적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367-13/mayor-bloomberg-receives-award-anti-poverty-efforts-children-s-aid-society-releases-new/#/0>

http://www.nytimes.com/2013/09/19/nyregion/poverty-rate-in-city-rises-to-21-2.html?_r=0

환경·안전

화학비료를 대체하기 위한 소변기증 캠페인 전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 환경·안전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의 Waternet(상·하수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업)는 다운타운에 위치한 광장 La Place de la Bourse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소변 기증을 받는 캠페인을 벌리고 있음. 이렇게 모아진 소변은 정제를 한 후 도시의 농작물이나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작물들의 비료로써 사용될 예정임.
- 이러한 캠페인은 ‘국제 물의 날’(International Water Week)을 기념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소변’(Green Urine)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임.
 - 일반 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화학비료의 주재료인 인산염은 일반적으로 중국, 이집트, 모로코 등의 광산에서 광물을 통해 채집되는데, 저장된 자원이 50~100년 사이에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어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인산염은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주요한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초과되는 인산염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기도 함. 이러한 소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연친화적인 비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환경도 개선할 수 있음.
- 현재 Waternet은 소변과 하수시설에서 보다 많은 인산염을 채취하기 위해 정제 공장을 2014년 완공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정제시설을 통해 연 1,000톤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화학 연구팀은 정화시설에 들어가기 전 소변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스웨덴의 작은 도시 타눔(Tanum)은 2002년 소변 전환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수세식 소변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도심 광장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



좌) 소변에서 만들어지는 비료의 제작 과정, 우) 모여진 소변들은 도시경관을 바꾸는 녹색경관의 비료로 사용될 예정임.

http://www.ubmfuturecities.com/author.asp?section_id=242&doc_id=526122<http://www.sswm.info/category/implementation-tools/reuse-and-recharge/hardware/reuse-urine-and-faeces-agriculture/fertili>

에너지절약형 주택보수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마련

프랑스 / 환경·안전

- 프랑스 정부는 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했음. 보일러 교체나 이중창 설치, 히트 펌프(Heat Pump, 공기/물/지열 등 외부의 열을 흡수해 실내로 배출하는 난방기) 설치, 지붕과 벽면의 단열재 설

치, 목욕용 온수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구 설치 등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지원 대상이며, 이 정책에 따르면 46%의 프랑스 시민이 친환경-보수 공사를 위해 공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프랑스 정부가 2013년 가을부터 실시중인 친환경 주택보수 공사 정책 로고

- 프랑스 정부와 국립주거국(Agence nationale de l'habitat, 약칭 Anah)은 장기간에 걸쳐 절약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친환경-보수 공사가 확실한 이점이 있다고 보고, 각 가정이 공사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비용 지원 조치를 마련함. 이에 따라 공사 시작 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가구에는 1회성 지원금이 특별 지급되는데 프랑스 전체 가구 중 46%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그 외에도 주택의 친환경-보수공사 비용에 대한 무이자 대출과 공사 후 지불된 대금에 대한 감세 정책이 도입됨.
 - 중간 소득 가구에는 1,350유로가 지원됨. 공사는 전문 기능공이 시행해야 하며, 지붕 전체의 단열 공사, 건물 외벽면의 절반 이상을 단열재로 덧대는 공사, 외부로 향한 유리칸막이(통유리 창 등)의 절반 이상에 대한 단열공사, 컨덴싱 보일러나 히트 펌프, m-CHP 보일러(스털링엔진과 콘덴싱보일러를 결합해 전기, 온수, 난방 열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가정용 초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등의 설치 공사, 목재나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보일러나 온수생산 난방기기 설치 공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목욕용 온수기기 설치 공사 등이 지원대상이 됨.
 - 빈곤 가정에는 3,000유로가 지원됨. 건물 자체의 에너지효율 지수를 25% 이상 개선시킬 수 있는 공사여야 함. 공사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전문가 1인이 집주인과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함. 이 전문가는 건물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가장 적합한 공사를 제안하게 됨. 이 지원금 또한 건물공사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는 공사만이 해당됨.

-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는 이자율 0%로 최대 3만 유로(약 4,3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함. 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거주 지역의 주거국 전문상담원과 면담하여 가능한 공사와 지원금 액수를 정하게 됨.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설비는 전문기술자가 선택하고 설치해야 함. 이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공사로 최소한의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증가가 기대되는 경우, ② (몇 가지 기술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전기를 쓰지 않는 별도의 개인적인 정화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중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는 공사이어야 함. 또는 ① 지붕 단열, ② 건물 외벽의 단열재 추가 부착 공사, ③ 건물 외부로 향한 창문과 문 교체 공사, ④ 환기 등에 문제가 있는 난방기구의 설치 및 교체 공사, ⑤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 ⑥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온수기기 설치 공사 중 두 가지 이상 함께 실시하는 경우이어야 함.

- 프랑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사 후 지불된 대금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감세(credit d’impôt développement durable, 약칭 CIDD)” 정책을 도입함. 주택 보유자와 임차인에게 모두 해당되며, 단독주택이나 완공 2년 이상 되고 주요 주거지로 쓰인 아파트가 해당됨.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제공한 설비 구입비에 대한 영수증 제출을 통해 감세가 이루어짐. 본 설비와 자재 등은 제시된 친환경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함.
 - 감세는 ① 건물 외벽 절반 이상의 단열 공사, ② 지붕 전체의 단열 공사, ③ 외부 통유리 절반 이상의 단열 공사, ④ 바이오매스나 목재 난방기구의 설치, ⑤ 지열 난방기기 설치 공사, ⑥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태양열판 제외) 중 2종 이상의 공사를 복합해서 시행하고 공사비가 지불된 경우에 해당됨.

- 국립주거국은 친환경 주택 보수 정보 제공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원신청을 안내하기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친환경-보수공사 하고, 절약합니다(J’éco-rénove, j’économise)” 정책에 따른 이 새로운 조치들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리노베이션 정보 서비스” 사이트(Rénovation info services, <http://www.renovation-info-service.gouv.fr>)가 각 지자체별 에너지국을 시행주체로 해서 개설됨. 관심 있는 주민은 이 사이트에서 기본 정보를 얻은 후, 바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의 전문상담원과 면담을 통해 보수공사 계획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자문과

가능한 비용 마련 수단 및 각 주민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금 정책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프랑스에서는 2011년부터 주택 매매 시에 에너지 효율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고 A~G 7등급으로 나뉜 등급을 구매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의 친환경-보수는 보유 주택의 에너지 절약 지수를 개선시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주택의 친환경-보수 공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특히 주거용 건물의 공동소유주나 공동주택의 개별 가구주들이 연합해서 건물 전체에 대한 친환경 보수공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립주거국의 목표임.

<http://blogs.grandlyon.com/plan-climat/2013/10/21/renovation-energetique-de-nouvelles-subventions-pour-sauter-le-pas/>

<http://www.renovation-info-service.gouv.fr/>

<http://www.aie-lyon.org/renocopro/>

건물 신축 시 에너지 효율 건축설계 자문 지원

독일 뮌헨市 / 환경·안전

- 뮌헨市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1990년에 비해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 둔 상태임. 市는 이러한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2008년 “뮌헨 환경보호 표준조치 프로그램(Integrierte Handlungsprogramm Klimaschutz in Munchen : IHKM)”을 마련하였음.
- 뮌헨市 노동경제국은 이 IHK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물 신축 시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촉진 프로그램을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건축주로 하여금 초기부터 에너지 및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건축 설계를 하도록 자문하는 것임.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축주는 자문의 결과로서 다양한 에너지효율의 건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받게 됨.
 -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설계 대안들을 통해 건축주는 기술적, 재무적 관점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음. 즉, 투입 비용과 그에 따른 에너지효율 및 비용 절감액을 알 수 있게 됨. 물론 법률상 정해진 기준 이상의 에너지효율 설비를 설치할 것 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건축주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임.
 -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종업원 250명 이하, 연간 매출액 5천만 유로(약 718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임.
- 市 노동경제국에서 지원하는 자문은 신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 혹은 자문기업만이 이 프로그램상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자문기업 및 자문인력은 바이에른 건축가협회 및 바이에른 엔지니어협회에서 선별되며, 이들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nergieeffizienzplaner.de/bayern/>)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자문을 신청한 기업은 위의 명단에 없는 전문가 역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전문가는 본 프로그램을 위해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만 함.
 - 필요 시 노동경제국은 복수의 설계사무실을 지정할 수도 있음.
- 본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축주들에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건축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건물 신축 시 에너지 및 비용 효율적인 건축을 유도하는 것임.
- 설계 대안에는 2009년의 “에너지절약규정(Energieeinsparverordnung : EnEV)”상의 기준에 주안점을 둔 대안, 이 규정을 보다 심화하여 2014년 여름부터 적용되는 2014년 규정(EnEV 2014)상의 기준에 주안점을 둔 대안, “건물의 총에너지효율에 관한 유럽 지침(2010/31/EU)”의 기준을 반영한

“재건축은행 주택효율기준(KfW-Effizienzhaus 40)”을 바탕으로 한 대안 등이 포함되며, 전기, 난방 등의 영역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음.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Referat-fuer-Arbeit-und-Wirtschaft/News/zuschuesse-energieeffiziente-planung.html>

http://www.muenchen.de/rathaus/dms/Home/Stadtverwaltung/Referat-fuer-Arbeit-und-Wirtschaft/foerderung/pdf/Infoblatt_energetische-beratung.pdf

지역사회 농장(Community Gardens) 사업을 이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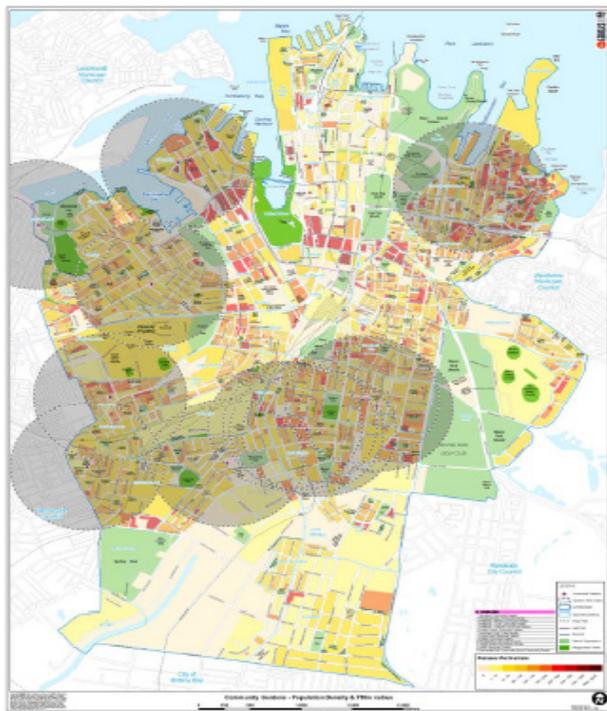
지역사회 개발

호주 시드니市 / 환경·안전

- 지역사회 농장이란 구청 및 지방정부 부지, 학교 및 교회 소유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의해 소유된 땅을 이용하여, 식용 야채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의해 관리되는 정원을 의미함. 지역사회 농장은 기존에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던 중소규모의 공유지를 창의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유기농 음식을 직접 재배하고 소비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배우고 공유하는 장(場)이 되며, 동시에 지역주민들 간의 친목과 교류를 활성화시켜, 적극적인 지역사회 개발의 도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이에 따라 시드니(Sydney)市는 지역사회 농장 사업을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시드니 도심 지역에만 19개의 지역사회 농장이 운영되고 있음. 지역사회 농장의 수는 앞으로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예상은 지역사회 텃밭에 대한 강한 수요와 함께 市의 정책적 지원에 기초하고 있음. 지역사회 농장은 호주 모든 도시들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시드니市는 특별히 지역사회 농장 사업을 “지속 가능한 시드니 2030(Sustainable Sydney 2030)”이라는 장기 도시 개발 전략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 이 지원 정책에 따라 지역사회 농장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조직이나 지역주민들은 市의 ‘환경 보조금 (Sydney Environmental Grant)’ 또는 ‘기여 보조금 (Matching Grant)’ 등의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음.



랜드윅(Randwick) 유기농 지역사회 농장(좌)과 매쿼리 대학교(Macquarie University) 지역사회 농장(우)



시드니 도심 지역 지역사회 농장 분포도

- 애초에 지역사회 농장은 자발적인 지역사회 활동으로 시작되었으나, 市는 지역사회 농장을 지역사회 개발 전략으로 접근하여 운영자 및 운영 단체를 市가 적극 지원하는 협력체제로 변형시킴. 이를 통해 지역사회 농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지역주민들 간의 지역사회 연대 의식이 강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市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식의 지원을 제공함.

- 자문 및 물질적 지원 : 지역사회 농장 운영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며, 운영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함. 새로운 지역사회 농장 설립 및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 보조금 신청 및 획득을 지원함.
 - 교육 및 트레이닝 : 지역사회 농장 운영자들의 필요에 기반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웹사이트(<http://www.greenvillages.com.au/community/community-garde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함.
 - 기타 지원 : 개별 지역사회 텃밭 운영자들을 연계시키고 관계를 맺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도록 지원함. 특히 “시드니 지역사회 농장 네트워크(Sydney Community Gardens Network)”, “호주 도시 농장 및 지역사회 농장 네트워크”, 그리고 “시드니 공정 음식 연합(Sydney Food Fairness Alliance)” 등의 비정부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함.
- 市の 재정적 지원은 보조금 지급에 한정되지 않으며, 농장 수리, 공공 표지판 건설, 퇴비, 토양 및 식종 등 실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市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농장의 독립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농장들의 재정 자립성 향상 및 독자적인 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교육 및 기술 지원에 자원을 더 투입할 계획임.

<http://www.cityofsydney.nsw.gov.au/community/participation/community-gardens>

도시교통

효율적으로 단순하게 요약된 자전거 노선지도 제작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도시교통

- 샌프란시스코市는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자전거 노선지도 대신 이용자

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 제작된 자전거 노선지도를 최근 공개함. 이번에 제작된 자전거 지도는 기존 지도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줄이고 일반인이나 여행객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음.

- 市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전거 노선지도를 만들기 위해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와 비슷한 개념을 이용하였으며,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음. 이러한 디자인을 사용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지하철 노선을 이해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며, 또 이러한 디자인에서는 여러 경로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목적지를 향한 노선을 쉽게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임.
 - 이해가 쉬운 자전거 노선도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정보는 가능한 줄이고, 도로명, 경사도 등 언덕이 많은 샌프란시스코市的 특성을 잘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존의 자전거 노선 지도는 도로망과 중첩되어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글씨를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새롭게 디자인된 지도는 한 눈에 전체 노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원하는 노선을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음.



기존에 사용되었던 자전거 노선 지도



지하철 노선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자전거 도로 맵(샌프란시스코 전체 지도)



지하철 노선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자전거 도로 맵(다운타운이 확대된 지도)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3/11/wonderfully-simplified-map-san-franciscos-bicycle-infrastructure/7554/>

도시계획·주택

‘걸어서 즐거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물류차량 감소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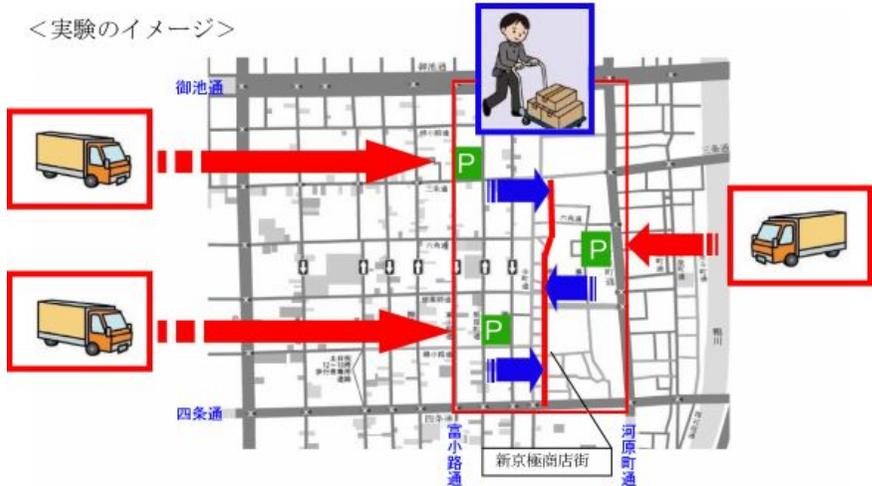
마련

일본 교토市 / 도시계획·주택

- 교토市 도시계획국은 역사적 도심지구인 시조도오리(四条通)에서 보행자 안전의 확보와 교통의 원활화, 나아가서는 주변 상가 거리의 활력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물류차량 감소 대책을 마련함.
- 2010년 1월에 책정한 “걷는 도시, 교토” 종합 교통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걸어서 즐거운 거리 전략 · 시조도오리(四条通)”는 보도 확장, 대중교통 위주 교통 체계 재편 등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2013년 11월부터는 물류차량 감소 노력이 중점 대책으로 채택됨.
 - 시조도오리(四条通)는 10개의 상가가로가 위치하는 교토 최고의 상업 지역으로서 취급화물 유동량이 많아 간선 도로의 원활한 교통에 지장을 주었고, 또 물류 차량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물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생산물을 운반하는 일련의 흐름으로, 시민 경제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활동임. 따라서 시조도오리(四条通)에서 주변 상가 거리의 활력 창출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물류차량 감소 대책을 마련함.
- 도시계획국의 중재로 지역 상가, 물류 사업자, 물류 차량사업자가 함께 물류 워킹 그룹을 형성하여, 물류차량 적정화 대책(물류차량 유출입량 조정, 주정차 수 및 시간 단축 등)을 준비함.
 - 시조도오리(四条通)에 위치한 신교고쿠(新京極) 상점가의 ‘사회 실험’을 확대 실시함.

신교고쿠(新京極) 상점가의 '사회 실험'

대상지	신교고쿠(新京極) 상점가
'사회 실험'의 내용	신교고쿠 상점가는 하루 종일 차량 통행금지를 시행하여, 물류 차량이 상점가로 들어갈 수 없음. 따라서 주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짐을 배달
교토市와의 협업	교토市는 주차장 활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차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험 기간 동안 아침에 주차 요금을 상가 업체와 함께 부담



신교고쿠(新京極) 상점가의 사회실험 이미지(<http://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159/159002/kouhou.pdf>)

- 물류 사업자가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짐 처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 사업자의 협력을 얻고, 역사적 도심 지구 주변의 주차장 지도를 작성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물류 사업자에게 배포함.
- 물류 워킹 그룹(지역 상가, 물류 사업자, 물류 차량사업자)과의 협업을 통해 동일 지구 내 공동 배송 등 물류 차량 감소 노력을 이끌어냄.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59002.html>

<http://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159/159002/kouhou.pdf>

문화유산 보존 중장기 전략 발표

호주 멜버른市 / 도시계획·주택

- 멜버른市는 “문화유산 전략(Melbourne’s Heritage Strategy)” 발표를 통해 향후 15년간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한 市의 역할을 명시하고 전략에 따른 사업 실행에 착수함. 이번 전략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에 기초한 것으로서, 멜버른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향유하기 위한 장기적인 틀(Framework)을 제공하고 있음. 이번 전략 발표는 최근 市의 인구성장 및 도시개발로 인해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필요해짐에 따라 성장과 보존의 균형이라는 장기 목표 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멜버른市는 호주에서 영국 식민지 정착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도시로서 빅토리아 시대의 도시 풍경, 건물 및 공원 등이 고스란히 유지되어 있음. 전략에 포함된 문화유산 개념에는 이러한 사적지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행사, 예술작품 및 기념물, 그리고 원주민 유적지 등 과거의 문화유산과 함께 계승의 가치를 지닌 현재의 문화유산 및 활동까지 포괄하고 있음. 또한, 전통, 고고학 및 구전이야기 등 무형유산까지 아우르고 있음. 이번 전략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기존의 소극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하고,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즉, 문화재 지정 및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더욱 강조되어 있음.
- 문화유산 전략이 명시하고 있는 市의 역할과 책임은 크게 네 가지 하위 전략(이해하기, 보호하기, 관리하기, 소통하기)으로 요약됨. 각 하위 전략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이해하기 : 그동안 市의 문화유산 보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가치를 가진 많은 자연적 또는 산업적 유산들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 이에 따라 市는 문화유산 기록을 재정비하고, 시민들이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더욱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문화유산들의 위치 정보를 市의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과 연계하여 문화유산 계획, 관리 및 해석을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발전시킴.
 - 보호하기 : 문화재 발굴, 보존 및 회복과 관련한 기존의 역할과 성과를 재점검

하고, 기존 보호 시스템의 미비한 점과 비 일관적인 부분들을 개선함. 이번 전략은 특히 도시개발 전략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즉, 도시를 고개발 지역(High-growth), 혼합지역(Mixed Use Zone) 및 주거 지역(Residential Zone)으로 분류하고, 특히 성장과 개발이 왕성한 도심의 고개발 지역의 문화유산 확인 및 보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아울러, 문화재 등급 체계와 개발통제 계획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임.

- 관리하기 :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 市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市가 관리에 관한 책임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사회나 단체 또는 개인들이 소유한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市는 토지 이용 및 개발 제한에 관한 법적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전략은 市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관리 지원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음. 문화유산 관리 지식, 정보 및 전문가 조언들을 체계화하여 관리지침(Heritage Management Principles)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사업임. 또한, 주요 문화유산 관리자들을 확인하고 재정비하는 일, 최적의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지원, 그리고 관리자들에게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등도 주요한 실행방안임. 특히, 기존에 장기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유했던 관리자(Custodians)들 보다는 신규 관리자들을 위한 정보 패키지(Heritage Information Package)를 구축할 계획임.
- 소통하기 : 일반 시민, 비즈니스, 문화 및 교육 기관 등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함. 이를 위해 “멜버른의 기억(Melbourne's Memory)”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멜버른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며, 문화유산 센터 및 갤러리를 설립하여 문화유산 정보를 광범위하게 시민들과 공유함. 특히, 각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관련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축제나 기념행사 및 전시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이번 문화유산 전략 및 실행 계획에 대해 매 4년마다 그 진행상황과 성과가 점검될 계획이며, 2020년에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종합적인 중간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임.

<http://www.melbourne.vic.gov.au/AboutCouncil/MediaReleases/Pages/CityofMelbourne15yearHeritageStrategylaunched.aspx>